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표지 탐색하기

<마간당 까또또>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마간당 까또또'는 필리핀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추측해 보세요.  
(힌트. 책의 표지에 답이 쓰여 있습니다. ^^)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보이는 것을 묘사해 보세요.

⇒

(3~4)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아픔 없는 성장은 없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서로 원하고 통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용서와 이해는 마음이 열렸을 때 가능하며 함께 하는 노력이 있어야 뜻있는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데 정해진 틀이 없듯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나 선택, 마음 가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쁜 어울림이 아닌 한, 우정의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3)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위 1)에서 답한 책 제목의 뜻과 뒷글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 책 <마간당 까또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것 같은지 짐작해 보세요.

⇒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할머니는 작은 어깨를 응등그리며 구석진 곳에 폴씩 주저앉았다.
- 세븐이 어정거리고 있을 때, 자스민이 나타났다.
  - 지프니의 매연과 뽀얀 흙먼지로 길가의 나무나 바위에는 더께더께 얹혀 있었다.
  - 여덟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청아한 노랫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 영우 아빠는 그동안 이곳저곳을 수소문해서 간신히 세븐 아빠를 찾았다.

(나) ·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   를 겹쳐서 사용하고 어려운 낱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 세븐은 가는 곳마다 ㉡    를 연발하며 좋아했지만, 얼굴 한구석에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 응등그리다 : (     )    · 어정거리다 : (     )    · 더께더께 : (     )
- 청아하다 : (     )    · 수소문하다 : (     )

- ① 여러 겹으로 쌓여 붙은 모양.      ② 속된 티가 없이 맑고 아름답다.
- ③ 춥거나 겁이 나서 몸을 움츠리다.    ④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두루 찾아 살피다.
- ⑤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

2) (나)의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말은 ‘품사를 나타내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나)의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    :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듽성듬성 남아 있는 이로 망고 껍질을 벗기고 쥐가 갇아먹듯이 ( )를 하던 할머니.  
 ② 영우는 그것이 ( )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국적을 떠난 순수한 우정이라고 믿었다.  
 ③ "우리 집에 여러 종류의 ( )이 있거든."  
 ④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동등한 ( )로 대하지."  
 ⑤ "필리핀은 ( )가 끝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이 ( )인가?"

(나) 빠바사는 필리핀 사람들의 고유한 부활절 ㉠풍습이고 ㉡신앙이다. 영우는 친구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싶었다.

1) 문맥상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우기 : 일 년 중 비가 많이 오는 시기.
- 인격체 : 인격을 갖춘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
- 요기 :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동기 :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 상비약 : 병원이나 가정에 늘 준비해 두는 약품.

2) (나)의 밑줄 친 ㉠~㉢의 뜻을 아래에서 찾아 알맞게 짝을 지으세요.

㉠-( ), ㉡-( ), ㉢-( )

- ㉣ 믿고 받드는 일.
- ㉤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 ㉥ 한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1. 인디언 망고와 코피노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세븐의 가방 속에는 엄마와 아빠가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보물처럼 들어 있다.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먼발치에서라도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세븐은 자라면서 아빠가 많이 그리웠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엄마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물었지만 만족할 만큼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아빠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이 가무잡잡한 얼굴의 필리핀 아빠랑 같이 다닐 때, 세븐은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곁에 있는 아빠가 부러웠다. 어느 때는 코피노(한국인(코리아노)과 필리핀 사람(필리피노)의 혼혈아를 일컫는 말)라고 놀리는 아이들과 싸우기도 했다.

(나) 경비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 할멈은 다른 나라로 돈 벌러 간 코피노 아들이랑 늙어 죽었을지도 모를 한국인 남편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는데…….”

경비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돌아섰다. ‘뭐라고? 나 같은 처지의 아들이 있다고?’

세븐은 한순간 얼음처럼 굳어 버렸다.

사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희미한 눈빛이 낮익은 풍경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1) (가)에 나타난 ‘아빠’에 대한 ‘세븐’의 마음을 파악하여 써 보세요.

- 
- 
-

2) (나)에서 ‘세븐’이 한순간 얼음처럼 굳어 버린 이유를 쓰세요.

⇒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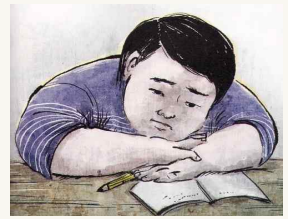


## 2. 국제 학교 똥똥보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키가 작고 똥똥한 영우는 한국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이곳에서 다시 들어서 무척 속상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한국에서보다 몇 배나 심하게 들어 모멸감까지 느꼈다.

‘에이! 싫다는데 억지로 필리핀까지 끌고 오더니 이게 뭐야. 영어 잘하라고 일부러 한국 애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넣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나) 영우는 고개를 들었다. 세븐이었다.

“자식, 지한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이거지. 오늘은 봐 준다만 앞으로 우리 일에 끼어들면 재미없을 줄 알아. 여기서 살면 필리피노(필리핀 사람)지, 도망친 코리아노(한국 사람)가 무슨 아빠라고.”

찰스가 덩지 큰 세븐을 걸눈질하며 비아냥거렸다. 세븐이 주먹을 불끈 쥐고 찰스를 노려보았다. 세븐에게 아빠는 원망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리움이 짙은 혈육이었지만, 찰스에게는 자기 가족을 배신한 파렴치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찰스가 혀를 날름거리며 아이들 틈에 섞였다.

1) (가)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한 ‘영우’의 마음이 드러난 말을 모두 찾아 쓰세요.

⇒

2) (나)에 나타난 ‘영우’와 ‘세븐’의 공통점을 쓰세요.

⇒

3) (나)에서 ‘아빠’에 대한 ‘세븐’과 ‘찰스’의 생각을 파악하여 정리해 봅시다.

**세븐** : 원망의 대상이라기보다

□□□이 짙은 □□이었음.

⇔

**찰스** : 도망친 코리아노는 아빠가 아니며, 자기 가

족을 □□한 □□□□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3. 이래저래 재수 없는 날/ 4. 마스크트를 찾아서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세븐이 앞으로 나섰다. 영우의 영어 이름이 ‘영’이다.

“절대로라고? 그럴 만한 이유를 말해 보겠니?” 선생님이 물었다.

“영은 그동안 필리핀 친구들에게 똥보라고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고 학용품도 빼앗겼지만 불평하거나 대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학생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영을 믿습니다. 찰스가 정말로 돈을 잃어버렸다면, 반 아이 모두와 교실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세븐,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날 모른 척하다가 왜 갑자기 도와준 거니?” / “난 원래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너는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 안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

세븐이 웃으며 말했다. 영우는 “아빠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럴 거야” 하고 말하려다 말았다. 영우는 그것이 동기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국적을 떠난 순수한 우정이라고 믿었다.

1) (가)에서 ‘세븐’이 ‘영우’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윗글에서 그 이유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두 군데)

2) (나)에서 ‘영우’와 ‘세븐’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세븐 : 원래 남의 일에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아빠가  사람이어서 그런지 영우가 자꾸 신경이 쓰였음.



세븐이 갑자기 영우를 도와줌.



영우 : 세븐과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이 통한 것은 을 떠난 순수한 이라고 믿음.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5. 진짜 엄마, 가짜 엄마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난 엄마가 혼내고 야단쳤던 때가 그리워. 리나는 절대로 날 혼내지 않아. 내가 어떤 실수나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며 감싸 주는 척하지.”

진수는 필리핀 엄마를 리나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안 혼내면 좋지 뭘 그래. 난 엄마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만날 혼낼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 영우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진수가 영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진짜 엄마는 그래야 하는 것 같다. 잔소리하고 혼내고 잘못하면 때려도 주고.”

(나) “난 열심히 골프해서 잘 나가는 프로 선수가 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진수의 말이 영우의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혼내는 엄마가 진짜라고, 잘못하면 때려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무조건 용서해 주고, 달래 주는 엄마는 진정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진수의 말이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인 것 같았다.

1) (가)에 나타난 ‘엄마’에 대한 ‘진수’와 ‘영우’의 생각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진수 :	⇔	영우 :
------	---	------

2) 윗글에서 ‘진수’는 무조건 용서해 주고, 달래 주는 엄마는 진정한 애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6. 빠바사(pabasa)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세븐이 자스민네 집에서 점심을 먹던 날이었다.

자스민네 엄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몹시 불친절했다. 자스민네 아떼는 식구들의 식사가 끝난 뒤, 주방 구석에서 썩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밥을 먹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세븐이 말했다.

“남은 반찬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아떼는 그렇게 먹니?”

자스민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야 한 대. 우리에게도 늘 도도하게 대하라고 했어. 당연한 거 아냐?” 그 순간, 세븐의 몸과 마음은 돌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세븐은 싸늘한 표정으로 자스민을 쏘아보았다.

“네 말은, 그래야 당연하다는 거지?” 세븐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도 아떼야. 지금 한국 사람 집에서 일하는데 그 집은 이렇게 안 해.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세븐은 핵 돌아서서 자스민네 집을 나왔다. 자스민이 쫓아오며 여러 번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튿날 자스민이 사과했지만 세븐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난 너와 처지가 많이 달라. 더더욱 다른 건 사고방식이고. 그동안 고맙다.”

1) 윗글에서 ‘자스민’은 ‘아떼’가 주방 구석에서 썩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밥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밑줄 친 ‘세븐’의 말을 토대로, 이러한 ‘자스민’의 태도를 비판해 보세요.

⇒

2) 윗글에서 ‘세븐’이 ‘자스민’에게 말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점을 모두 쓰세요.

⇒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7. 그리운 그곳

<마간당 까또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영, 나 괜히 여기 왔나 봐.”

세븐이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영우는 마음이 저렸다. 세븐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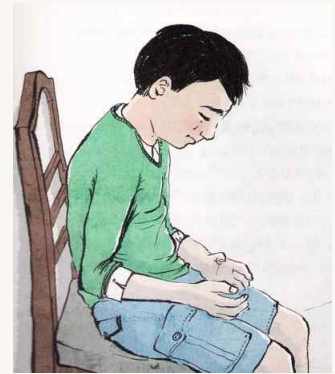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약해지거든.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울지 않아야 해.”

필리핀에서 세븐은 영우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빠가, 아빠가 너무 불쌍해.” 세븐이 눈물을 닦으며 영우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영우가 다그쳐 물었다.

“아빠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팔과 다리, 눈도 정상이 아니야. 그런데다 엄마와 결혼을 반대하시던 할머니까지 편찮으셔서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대. 그 뒤 몇 번이나 필리핀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 아빠가 떠난 뒤, 아빠랑 엄마가 살았던 집이 태풍으로 무너져서 시골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 아빠는 내게 용서해 달라며 한참을 우셨어.”



1) 윗글에서 ‘세븐’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2) 윗글에서 ‘아빠’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를 당했고, 까지 편찮으셨음.



몇 번이나 필리핀으로 를 보냈지만 이 없었음.



# 마간당 까또또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이재희 글 / 문보경 그림



##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좋은 친구 2)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데,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고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 키가 크고 파란 티셔츠에 줄무늬 바지를 입은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며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의 어깨를 두르고 있다. 두 사람 주위에는 나뭇잎들이 흩날리고 있다. 3) 마음을 열고,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4) (예시답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오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차차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2쪽	1) 응등그리다 : ③, 어정거리다 : ⑤, 더께더께 : ①, 청아하다 : ②, 수소문하다 : ④ 2) ㉠ : 조사, ㉡ : 감탄사
3쪽	1) ① 요기, ② 동기, ③ 상비약, ④ 인격체, ⑤ 우기 2) ㉠-㉡, ㉢-㉣, ㉤-㉥
4쪽	1) (예시답안) 자라면서 아빠가 많이 그리웠음. / 아빠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함. /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2) 죽은 사라 할머니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을 들어서
5쪽	1) 무척 속상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모멸감까지 느꼈다, 외롭고 힘든데 2) (예시답안)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 3) 세븐 : 그리움, 혈육 / 찰스 : 배신, 파렴치한
6쪽	1) ① 영은 그동안 필리핀 친구들에게 똥보라고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고 학용품도 빼앗겼지만 불평하거나 대든 적이 없습니다. / 그동안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보았기 때문에 2) 세븐 : 참견, 한국 / 영우 : 국적, 우정
7쪽	1) 진수 : 잔소리하고 혼내고 잘못하면 때려도 줘야 진짜 엄마임.(실수나 나쁜 것을 해도 팬찮다며 감싸 주는 척하는 건 진짜 엄마가 아님.) / 영우 : 엄마 잔소리가 지긋지긋하고, 만날 혼낼 일만 생각하는 것 같음. 2) (예시답안) 진수의 생각과 달리 나는 무조건 용서해 주고, 달래 주는 엄마도 진정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혼내는 엄마가 진짜 엄마이고, 잘못하면 때려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없다. 엄마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8쪽	1) (예시답안) 아무리 엄마가 시켰어도 자스민이 아떼에게 도도하게 대하고, 주방 구석에서 썩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밥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은 모두 존중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세븐의 말처럼 아떼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2) 처지, 사고방식
9쪽	1) 남자가 울면 가족들이 다 약해지기 때문에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2) 교통사고, 할머니 / 아빠가 떠난 뒤, 집이 태풍으로 무너져서 시골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음. / 편지, 답장